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중국, 신흥시장 물류지수 12년 연속 1위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러-우크라 전쟁, 베트남 수출입에 악영향 지속 전망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사슬 변화
초래 예상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미 LNG, 유럽의 러 가스 수입 대체 가능할 듯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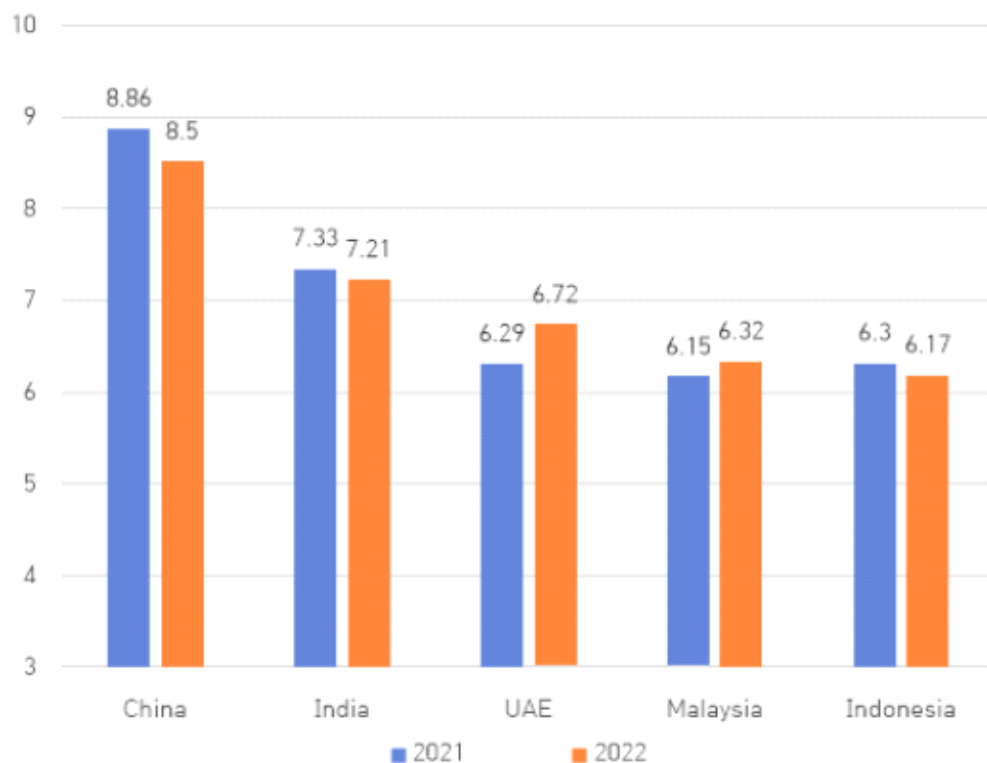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중국, 신흥시장 물류지수 12년 연속 1위

- 2022년 기준 중국이 글로벌 주요 신흥시장 물류지수¹⁾ 8.5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인도 7.21점, UAE 6.72점, 말레이시아 6.32점, 인도네시아 6.17점 순임
 - 중국의 경우 2021년 8.86점과 비교해 2022년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1년도 이후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함
 - 인도의 경우에도 2021년 7.33점에서 2022년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2위를 기록하며 순위에는 변동이 없음
 - 한편, UAE와 말레이시아는 2021년 대비 2022년 지수가 각각 0.43점, 0.17점씩 상승했고 순위 역시 한 단계씩 상승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지수가 0.13점 하락하며 순위가 두 단계 밀려 5위를 기록함

글로벌 주요 신흥시장 물류지수(2021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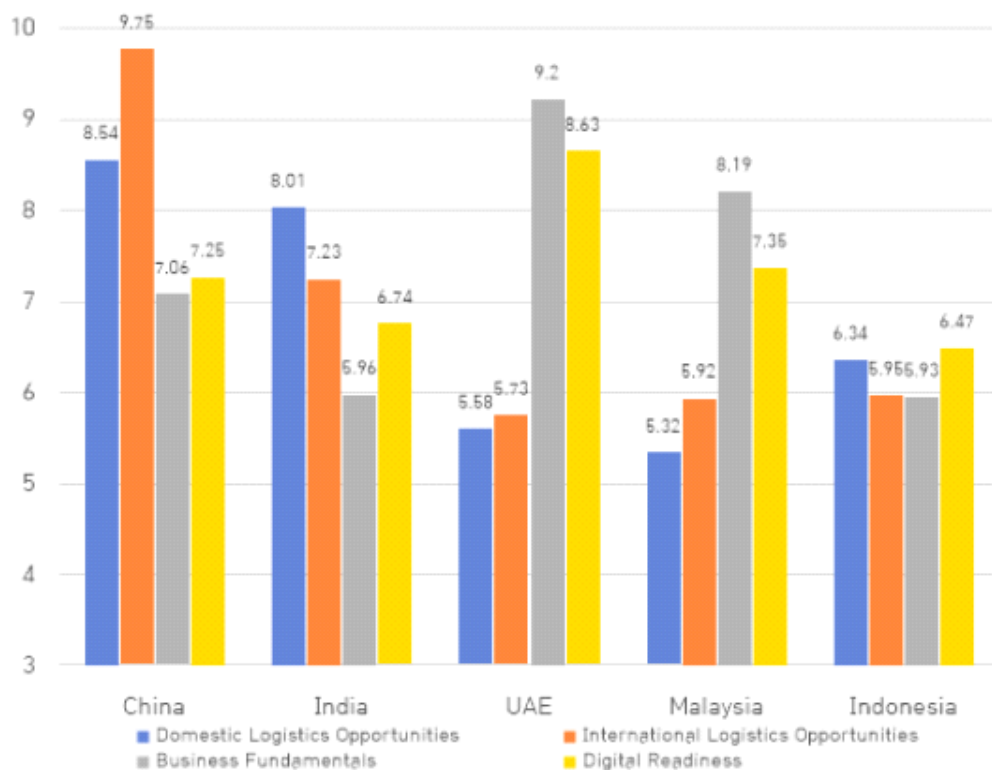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22, 2022.*

1) 신흥시장 물류지수는 물류 컨설팅 업체 영국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Transport Intelligence)사와 중동의 대표적 물류기업 어질리티(Agility)사가 780여 글로벌 물류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 세계 주요 50개 신흥국의 물류산업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여 매년 발표함

- 2021년도까지 기존 신흥시장 물류지수는 국내 및 국제 물류 기회와 사업 기초여건 등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부터 '디지털 준비성'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됨

- 중국과 인도는 국내 물류 기회 측면에서 각각 8.54점과 8.01점, 그리고 국제 물류 기회 측면에서도 9.75점과 7.23점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함
- 반면 사업 기초여건에서는 UAE(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9.2점과 8.19점, 그리고 디지털 준비성에서 8.63점과 7.35점으로 1위를 2위를 기록함

항목별 글로벌 주요 신흥시장 물류지수(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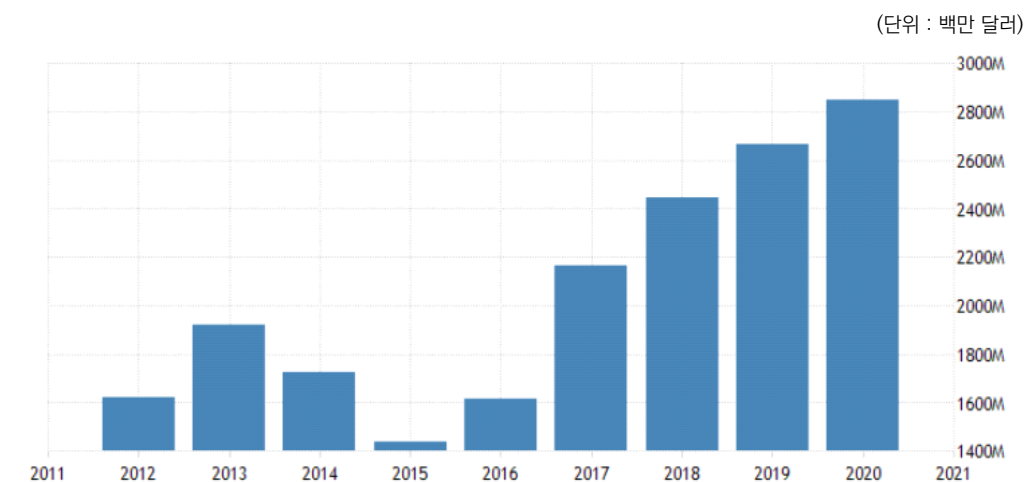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22*, 2022.

참고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21*, 2021.

러-우크라 전쟁, 베트남 수출입에 악영향 지속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화물 가격, 유통 등 베트남 수출입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베트남의 핵심 무역파트너로 유라시아 국가 중 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2021년 기준 베트남-러시아 간 수출입액 규모는 약 55억 달러에 달함
 - 러-우크라 전쟁으로 단기적으로는 핵심 품목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원료 및 원자재 인상 등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對 러시아 수출액은 2020년 기준 약 2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의 對 러 수출액은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약 2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4년과 2015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016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함
 - 2016년(약 16억 달러) 이후 2017년(21억 달러)부터 2020년(29억 달러)까지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장비가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섬유·의류(11%), 커피(6%) 순임

베트남 對러시아 수출액 변화(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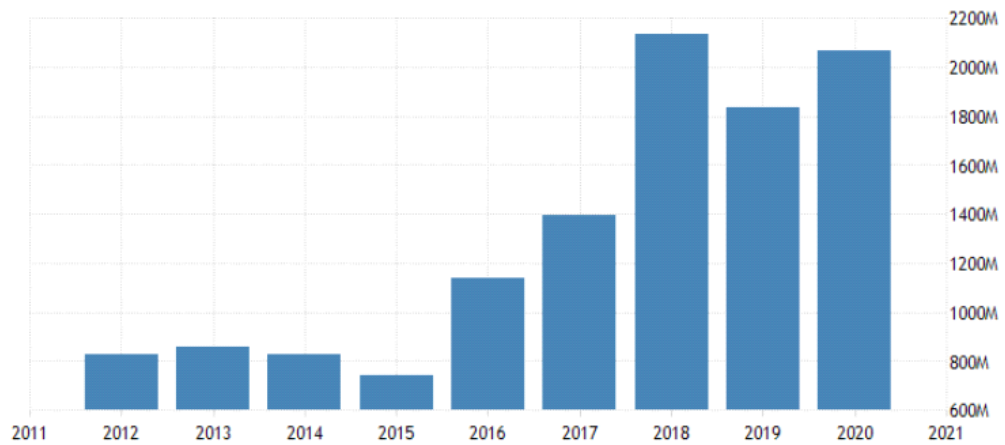


자료 : www.tradingeconomics.com, (검색일 : 2022.3.22.)

- 對 러시아 수입액은 2020년 기준 약 21억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액과 유사한 형태로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함**
 - 2010년 초반 7~8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입 규모는 2016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8년 20억 달러는 넘어서는 등 급격히 증가함

베트남 對러시아 수입액 변화(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www.tradingeconomics.com, (검색일 : 2022.3.22.)

- 러-우크라 전쟁으로 화물 대금 지급, 운송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 물류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 및 EU의 러시아 제재 및 루블 환율 하락 등으로 러시아 화주의 운송 대금 지급 유예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러시아행 운송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
 - 또한 러시아행 해상 및 항공 중단 조치로 인해 타 항만 및 공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운송해야 하는 점 또한 물류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현지 물류업계 및 전문가에 따르면 러-우크라 사태가 베트남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동 사태가 지속될 경우 양국 수출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www.fibre2fashion.com, (검색일 : 2022.3.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사슬 변화 초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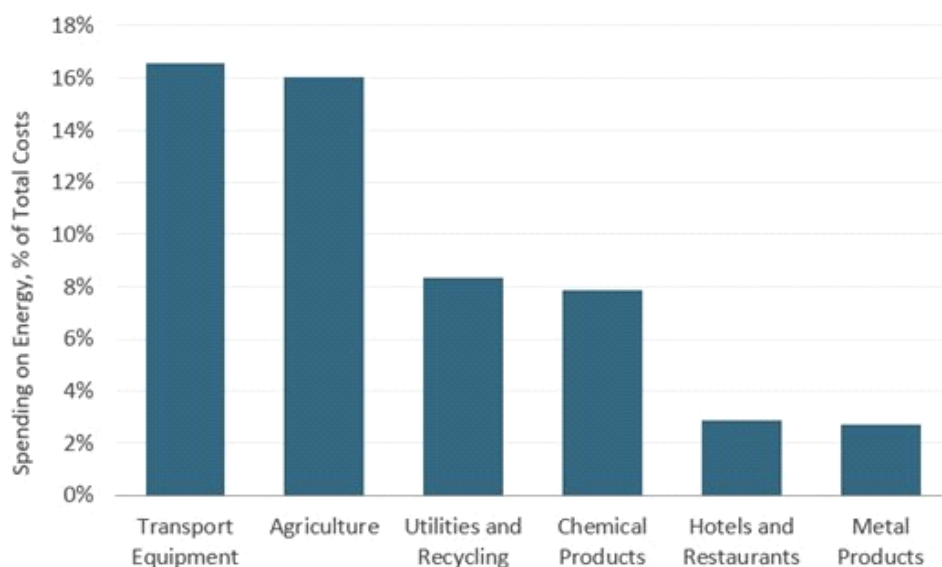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자재, 농산물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유럽, 미국 등의 경제 제재는 공급사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전쟁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며, 백금, 알루미늄, 해바라기유, 철강을 비롯한 여러 제품군의 글로벌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차량 및 반도체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글로벌 물류 및 운송 네트워크 문제 등을 야기함

●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석유 공급의 12%,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18%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임

- 특히, 유럽 40%, 독일 65%의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모든 원유 및 석유 제품의 7%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것임
- 유가는 2022년 내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는 연말까지 추가로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금속 및 화학제품, 비료 및 기타 제품과 같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2020년 기준)



자료 : www.euromonitor.com/article/key-supply-chain-risks-from-russias-invasion-of-ukraine, (검색일 : 2022.03.22.)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곡창지대이자 식품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로 식품 공급 사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밀을 수출하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사용하는 비료의 필수 원료를 대량 생산하는 주요국임
-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물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종자유 전 세계 수출의 35%를 차지함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네온 가스와 팔라듐의 주요 공급원임**

- 업체들은 현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생산 중단은 불가피해 보임
-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외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공급 차질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됨**

- 폭스바겐과 BMW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조한 와이어링 하니스가 부족해 독일의 조립라인을 폐쇄했음
-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쉐린은 물류 문제로 최근 유럽의 일부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발표했음
- 특히,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러한 공급사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유럽 내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를 강화해 현지조달을 할 수 있는 지역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육로, 항공, 해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운송 산업의 혼란과 비용 상승이 초래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운송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아시아-유럽 물류 루트는 해상에서 철도 운송으로 대체되고 있음
- 중국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운송되는 상품의 양은 2019년 1,400만 톤에서 2020년 2,400만 톤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도 중국과 유럽 사이에 150만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되었음
- 특히, 전쟁으로 인한 육로 운송의 차질은 유럽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철도를 활용하는 중국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흑해 항로는 폐쇄되었으며, 이는 곡물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음
- 영공에 대한 제재와 제한으로 유럽과 러시아 간 항공이 단절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로 향하는 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류 회사가 운영하던 항공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화물 운송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항공노선의 혼란으로 항공 운송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운송업체는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의 제재 및 제한으로 기존에 활용하던 운송 경로 대신 새로운 운송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운송산업 비용의 총 13%를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는 비용 상승 압박이 증가해 일부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혼란으로 많은 기업이 현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사슬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은 안전하고 저렴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사슬 운영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은 상품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재고를 늘리면 단기 공급사슬 중단을 해결할 수 있으나, 재고 확대 방안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파트너 간 정보의 공유 및 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함
- 다양한 운송 경로에 대한 실시간 추적 및 가시성을 통해 물류 공급의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 LNG, 유럽의 러 가스 수입 대체 가능할 듯

- ▶ 지난주 미국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 Anne-Sophie Corbeau 박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 특히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미국의 LNG가 대체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은 가스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지난달 유럽연합에 작년 1월 대비 40% 감소한 580만㎥을 수출하는데 그쳤음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자 유럽 위원회는 1년 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 50%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 ▶ 아울러 미국 금융자문회사 Evercore ISI의 Sean Morgan 연구원은 이와 같은 유럽의 에너지 부문 정책 변화가 미국 LNG 수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음

미 루이지애나주 Sabine Pass LNG 터미널



자료: OFFSHORE ENERGY "Cheniere Energy's Sabine Pass LNG terminal hits record flow" (2022.1.25.) 참조

- 시장조사회사 케플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LNG 수출량의 약 60%인 430만t이 유럽으로 향해 작년 1월의 약 10%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LNG 신규 투자도 3년 만에 재개되어 투자액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음
 -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연간 천만 톤이 넘는 생산 능력을 가진 새로운 LNG 플랜트가 조만간 가동될 것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LNG는 유럽에 판매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주장했음
 - Cheniere Energy의 Sabine Pass LNG 터미널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은 1년 내 추가로 약 7,500만 톤의 LNG를 러시아 외 다른 지역에서 수입할 계획이며 미국은 약 8,700만 톤의 LNG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2년 3월 23(수) 09:00 ~ 5월 4일(수) 16:00 까지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사업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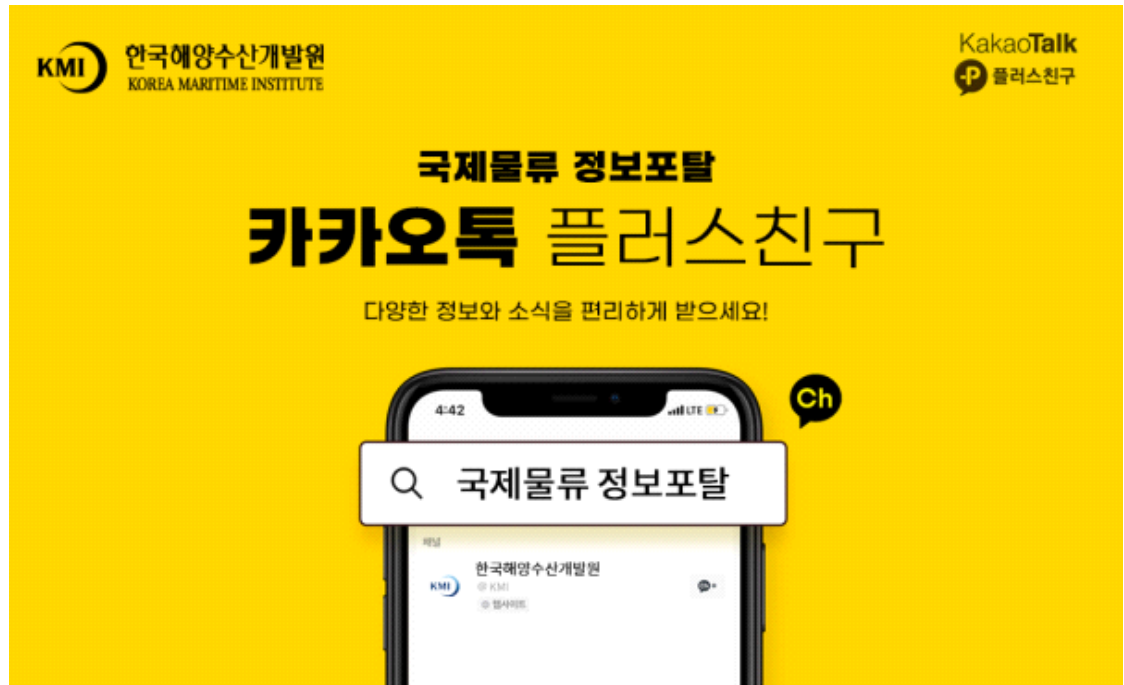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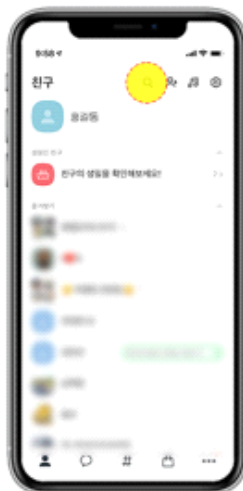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P-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